

DH그룹, 부안 제3농공단지에 1500억 투자

2032년까지 3단계 투자로 스마트팩토리·수소공장·R&D단지 조성 예정... 전북 서부권 첨단 산업벨트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안에 피지컬 AI·방산·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제조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에 이어 DH그룹까지 전북 서부권 투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첨단산업 벨트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부안군은 지난 13일 도청에서 DH그룹과 부안 제3농공단지(투자면적 10만 1,836㎡) 일원에 피지컬 AI·방산·수소 산업 제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장권 DH그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후 지역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DH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500억 원을 투자해 부안 제3농공단을 피지컬AI·방산·수소 산업이 집약된 복합 제조기지로 고도화한다.

우선, 900억 규모의 피지컬AI 분야 스마트팩토리가 들어선다. 산업을 로봇 자동화 부품, 드론 및 무인항공기 기반 방위산업 생산라인이 구축되며, 2027년 착공해 자율주행이동로봇(AMR) 기반 무인 물류시스템과 디지털트윈 공정 자동화를 적용한 시설을 2029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에는 350억 원을 투입해 수소소모빌리티 부품 제조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액화수소연료탱크와 전기·수소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같은 해 미래비전 연구단지 조성도 함께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DH그룹 피지컬AI·방산·수소 복합 제조기지 조성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장권 DH그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시작한다. 250억 원이 들어서는 이 연구단지는 수소·로봇·AI 융합 신제품 연구개발 허브이자 전북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인력 양성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직접고용 310명, 간접고용 포함 600~9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기반의 부품 공급망, 수전해 수소생산기지와의 에너지 연계, 새만금 AI·수소 시티 클러스터 효과까지 더해져 전북 서부권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2023년 이후 부안

군의 투자유치 흐름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관광·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기존 협약들과 달리, 피지컬AI·수소소모빌리티·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을 유치한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DH그룹 투자협약은 부안 제3농공단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전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DH그룹이 차질 없이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가능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DH그룹은 2025년 그룹 매출 1조원을 넘긴 중견그룹으로 생활기전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역량을 토대로 피지컬AI·수소·드론 및 무인항공기 기반 방위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제조업 기반의 미래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만호기자·부안·김석진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16~20일 주요 도정 일정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민생안정·복지·경제 지원 집중

도, 16~20일 주요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는 16~20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정 현안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16~20일 주요 도정 일정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도민들에게 주요 정책 방향을 안내했다.

우선 16일에는 26일 '위기가동충년법' 시행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청년미래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부와 전북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도는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비상경제 대응 TF와 관련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기업유치지원실장,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민생물가 안정팀, 석유가격 안정화팀, 수출기업 지원팀, 소상공인 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주유소 현장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환경산림국장

과 사회재난과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임차 헬기 3대를 확보하고 산림청 헬기와 연계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 돌봄법' 시행에 대비해 도내 16개 종합병원과 퇴원 환자 돌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도 점검한다. 이날 장수 봉화산에서는 식목행사도 개최된다.

18일에는 조달청과 함께 창업·벤처 기업 판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제통산진흥원 등 지방기관이 우수 기업을 추천하면 조달청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다.

또한 같은 날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담당 국장이 참석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도 열린다. 19일에는 소셜벤처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 예정돼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가 전북을 방문해 5급 3층 성장엔진 산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20일에는 임실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준공식이 열리고, '정읍 지향의 농업시스템' 국가 농업유산 지정서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1만호기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 중기 생산성 '쑥 ↑'

삼성 출신 멘토, 현장 밀착으로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 체질 바뀌어... 2027년까지 180개사 지원·고도화 연계 비율 10% 이상 목표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출신 전문 멘토들이 현장에 밀착해 공정 혁신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방위 지원을 펼친 결과, 참여 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진안군 소재 김치 제조업체 '참식품'은 수직형 중심 공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편차로 연간 원가 손실을 겪어왔다. 작업자마다 김치 속을 넣는 양이 달라 납품처로부터 반복적인 클레임을 받으며 신뢰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멘토들은 무거운 김치 통을 일일이 옮기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피로가 품질 저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년 공급버무림-이송 일체형 라인'을 직접 설계해 현장에 적용했다. 그 결과 일일 생산량은 1.5톤에서 1.65톤으로 10% 증가했고, 김치 속 혼합 공정 자동화로 인당 생산량은 150% 향

상됐다. 전자저울 데이터와 살비를 실시간 연계하는 정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량 초과 비율을 3.5%에서 2%로 낮췄고, 연간 1억 2,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재우 참식품 대표는 "공정 고도화와 판로 확대 성과를 동시에 얻었다"며 "올해 매출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화 로봇 도입을 통한 추가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자동차 부품업체 '한국몰드' 김제시 시스템 활용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고온·고압 스티를 다루는 SMC 프레스 공정에서 성형 조건을 전적으로 작업자 경험에 의존해 불량률 변동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멘토단은 금형 온도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가스 밸브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공정 불량률이 38% 감소했고, 에너지 비용도

2% 절감됐다. 회전형 작업대 도입으로 제품 생산 간격(Tact Time)은 211초에서 192초로 10% 단축됐으며, 참고 레이아웃 재설계를 통해 적재 효율도 10% 향상됐다.

고선영 한국몰드 김제 대표는 "현장에 상주한 멘토들이 우리 공정에 딱 맞는 시스템을 설계해 주고, 환경인원 분야까지 세심하게 챙겨준 것이 큰 힘이 됐다"라며 "이제는 데이터로 품질을 예측하는 지능형 공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파트너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 엔진 조립업체 '타모스'에서는 현장 혁신의 힘이 여실히 드러났다. 작업자들이 부품 하나를 조립하기 위해 참고를 수십 차례 오가던 비효율적 구조가 문제였다.

멘토들은 8주간 밀착 지도를 통해 50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전량 해결했다. 부품을 한 번에 묶어 공급하는 '키팅(Kitting)' 방식 도입으로 이동 횟수를 단 1회로 줄였고, 방각렌 조립용

기능성 턴장치 설치로 조립 시간을 대당 6초 단축했다. 일일 엔진 생산량은 8대에서 9대로 13% 증가했고, 공정 불량률은 1.3%에서 0.7%로 40% 감소했으며, 재고 정확도는 95% 수준으로 향상됐다.

승병학 타모스 대표는 "멘토들이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니 직원들이 먼저 마음을 열었다"며 "현장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작업이 편해지면서 '우리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79억 9,000만 원을 투입해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현장 혁신, 판로 지원, 환경인원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총 180개사를 지원해 이중 10% 이상을 고도화 사업으로 연계한다는 목표다. 특히 AI 연계 공정 최적화를 위한 시범 공장 모델을 구축해 스마트 공장 확산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1만호기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학교 주차공간 공유 검토를"

이명연 도의원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은 지난 13일 열린 제42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 지연 문제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 주차공간의 지역 공유,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 시설 지원과 관리 역할을 행정이 맡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1만호 기자

"세계청년대회, 전북엔 기회"

김이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문화와 관광, 종교문화유산 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산재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강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한국 최초 순교자의 유해가 발굴된 지역으로 천주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주 치명자산 성지 등은 한국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며 "올해 8월 예정된 세계청년 전북대회를 본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종교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숙박·교통·안내 체계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1만호 기자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을"

장연국 도의원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 책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활동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하는 별도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를 학생 수 증가와 연동하는 수요 대응형 체계로 전환하고, 중장기 배치 계획을 마련해 통합교육 중심 인력 재배치와 지역 간 배치 불균형 해소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이차전지기업 공동관 운영

전북TP와 '2026 인터배터리' 참가... 비즈니스 상담·협력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인 '2026 인터배터리'에 참가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기술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북 이차전지 기업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

즈니스 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관에는 에너지메카트로닉스(주), (주)에스엔, 비원솔루션(주), (주)코솔러스 등 도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참여해 핵심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 도내 이차전지 기업과 관련 기관의 참관도 적극 지원했다. 총 152개 기업 312명 관계자가 전시회를 참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논 하계조사료 재배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쌀 적정 생산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논에서 벼 대신 소 먹이용 풀인 조사료를 재배하도록 유도해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국산 조사료 공급을 늘려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도는 올해부터 논 하계 조사료 재배 농가에 기존보다 50만 원 인상된 550만 원(ha당)의 전라직물직불금을 지원

한다. 겨울·여름 이모작으로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동계 조사료 직불금 50만 원/ha와 추가 인센티브 100만 원/ha도 지급된다. 여기에 도 자체 사업인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100만 원/ha까지 합산하면 농가는 1ha당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세부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 4월 3일, 하계작물 5월 29일까지다. /1만호기자

도,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사업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왕진버스는 17일 완주군 고신면을 시작으로 도내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 40회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건소가 함께 참여해 정신건강 상담,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서비스 기과의 협력을 통해 먹거리 나눔, 공예 프로그램, 테이빙 네일아트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이러한 협력사업에 시군 중간지원조직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만호 기자